



 가을철

프프가무시증 예방수칙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유지현 063-238-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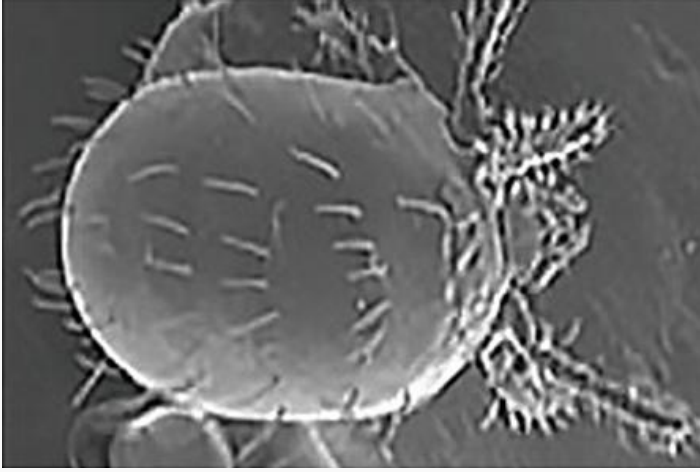
가을철 털진드기에 물리면 고열, 오한, 가피, 발진 등 증상 발생
긴 소매, 긴 바지 등 작업복을 단단히 입고, 질병 의심 시 빠른 치료 등 예방 수칙 준수

프프가무시증은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가을철 프프가무시증 환자 증가 우려

- 프프가무시증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는 털진드기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9월 ~ 11월)인 가을철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합니다.
- 이 병은 프프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 ~ 3주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가피(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털진드기 유충



들쥐 귀에 붙은 털진드기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자리에 생긴 가피

- ▣ 진드기의 주요 서식지인 풀밭에서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주 발생하므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의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옷을 세탁하고 전신 샤워를 해야 합니다.
- ▣ 또한 고열, 두통 같은 증상이나 검은 딱지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프프가무시증 예방 수칙 및 주의사항

-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풀밭에서는 반드시 돛자리를 사용하고 사용한 돛자리는 깨끗한 물에 빨아서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 ▣ 작업할 때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는데,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피제 사용 시에는 기피제 성분 및 사용 방법을 명확히 숙지해 사용해야 합니다.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찰진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작업복 차림

-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진드기가 반려동물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후에는 귀가 즉시 옷 등(모자, 장갑, 수건 등)을 세탁하고 전신 샤워를 해야 합니다. 옷 등에 붙어온 진드기는 체액 또는 혈액을 빨아 먹기 위해 습하고 주름진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머리카락 속, 귀 주변(귓바퀴 뒤, 귓속),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허릿살, 뒷무릎, 사타구니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피가 있는지 또는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찰진가무시증에는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빠릅니다.

* 참고자료 : 2020 진드기, 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 질병관리청